

양록인(養鹿人)의 발전을 위하여



광주 지회장 정이성

양록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임원들이 수고하여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해야 할 것이 있어 동거동락하자는 뜻에서 양록인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양록인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것 중에 몇가지만 적겠습니다. 농가 경영의 기본적인 것은 사슴 사육수입니다. 암·수비율, 마리수, 이표 관리등을 우리는 소홀히하고 있는듯 합니다. 다시말하면 개체관리를 보다 신중히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개체관리는 절각, 낙각 환축관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모, 녹용 생산량, 분만회수등의 기록이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체관리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농장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봄·가을의 구충은 잘 알고 계시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구충은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성장(체중, 체형, 녹용생산 등)에 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구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물관리의 중요성은 빼 놓을

수 없지요. 특히 여름철의 물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늘이자 물이지요. 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이행되지 않는것 몇개를 적어 보았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기록·관리 하신다면 여러분의 농가는 더욱 발전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격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병합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둘째, 양록협회 시·군지회 발전을 위하여

저는 전남지회를 대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계몽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은 관심이요, 관심은 비교와 참여를 보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터득하는 길이 5년이라면 지회의 참여속에 얻는 길은 1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걷는 길이 유익하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양록인 홀로 걸어왔고 대처해 나갔습니다. 홀로 생각하고 결단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되다 보니 지회나 협회를 비방하게 되었고 발전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며 외롭게 양록을 하신 농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녹용판매를 잘 하시고, 어떤분은 사슴을 잘 구입하시고, 사료 구입을 잘하시는 등 각각 다른 기능을 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개군이나 2~3개 시군이 결집하면 이루어 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역들의 결집과 정보교환은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제교역의 불안한 장래를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지회의 결성과 리더자의 수고를 바랄뿐입니다. 어느분이 희생하든지 열심히 동참해주는 지역 지회가 되도록 농가에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회는 발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양록협회(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 농가가 잘 되고 지회가 잘 된다면 협회는 자동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개인이 잘 된다고 지회가 잘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잘 되는 지회는 일 잘하는 지회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협조아래 지회가 할 일이 있다면, 지회의 결집아래 협회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협회가 정책적인 대안을 해결하고 농가의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협회는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수고와 염려속에 양록을 하시는 1만여 농가 여러분!

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생산된 산물의 판매가 아납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까지 말입니다. 저는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념하신 분들을 몇분 보았습니다. 우리협회 임원중에도 계셨습니다.

우리의 목적 달성만을 위한 맹목적인 결집이나 협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해결하고 보장

받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녹용과 녹혈은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축산물이자 약용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분 모두의 힘으로 당연시 여겨왔던 특소세를 폐지시키는 큰일을 해냈습니다. 어떤 농가는 특소세폐지 하나도 못하느냐고 반문했지만 협회는 이 일을 10여년간 굽히지 않고 오다 지난해에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협회를 다른 협회와 비교하기 전에 우리의 동참을 살펴보는 성숙한 모습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록하시는 분이 각처에서 뛰어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재능들이 한테 모여 협회에 충고하고 자문하면 우리협회는 더욱 성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국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양록인 여러분!

마음으로 반복하다 지워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전화로, 편지로 문의하시고 저희 총회나 협회총회에 적극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것을 묻고 사슴분양이나 매매, 각종기구, 약품 구입도 상의해 보십시오. 이제 100여개 지회결성을 목표로 하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지역별로 결성되고 년 2~3회 모이면서 친목도 도모된다면 봄날에 싹이 자라서 생동감을 주는 자연처럼, 싱그러운 오월의 녹용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 양록인 개인과 지회와 협회의 발전이 눈에 띄게 보일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는 축산, 경제성 있는 1차산업의 주체자로서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협력하기를 바라며 농가 모든분에게 건강과, 농장의 발전을 기원합니다.☺